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727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의자 : 최정순, 권영희, 채유미,
권수정, 김춘례, 노식래,
이상훈, 한기영, 장인홍,
송재혁, 강동길, 고병국,
김종무, 오현정, 홍성룡,
황인구, 이승미, 김혜련,
김경영, 김경우 의원(20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여성정책은 정치, 인권, 법·제도, 노동, 복지, 건강, 다문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내의 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은 서로 분산되고 중첩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2013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여성의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

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여성정책은 정치, 인권, 법·제도, 노동, 복지, 건강, 다문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내의 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은 서로 분산되고 중첩되어 추진되고 있다.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2013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여성의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실정이다.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